

04 _ 학계, 연구소의 홍보시스템

왜곡 · 과장 없이도 흥미로운 과학보도 가능하다



글 | 이은정 _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ejung@kyunghyang.com

〈사례1〉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윤석진 교수(36)는 올해 초 미국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구상 성단의 이중색분포 현상’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인쇄본 게재 전에 주요 논문만을 골라 미리 소개하는 ‘사이언스 익스프레스’ (2006년 1월20일자)에 소개된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국과학재단과 과학기술부는 사이언스 엠바고에 맞춰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교수의 연구성과를 알리기로 했다.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윤 교수가 직접 만들었다. 처음 만들어보는 보도자료는 막막했다. 다행히 윤 교수가 속한 연구실에 기존에 만들었던 보도자료가 있어 이를 견본으로 삼았다. 윤 교수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받아본 과학재단과 과기부가 내용을 고친 것은 없었다. 과기부 양식에 맞춰 박스를 치고 연구비가 어디서 지급됐다는 문장을 한두개 끼워 넣었을 뿐이다.

1월 중순, 과기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충동원해 열심히 설명했다고 생각했으나 다음날 신문과 방송을 본 윤 교수는

실망이 많았다. 연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하거나 ‘한국 과학자가 은하 형성의 비밀을 풀었다’는 식으로 과장된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한차례 태풍이 지나간 후 생각해보니 대중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미리 조언을 받았다면 좀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아쉬웠다.

〈사례2〉 미 퍼듀대 공업디자인학과 심석보 교수(35)는 지난해 4월 대만에서 열린 국제자전거디자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심 교수의 출품작은 바퀴가 갈라졌다 합쳐지는 신기한 자전거로, 초보자도 공포감을 갖지 않고 쉽게 탈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었다. 심 교수는 대만에 가기 전에 대학 측에 자신의 수상 사실을 알렸다.

대학의 언론 담당직원이 직접 심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 자전거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도 자료를 만들었다. 보도자료는 자전거의 원리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자전거가 속력을 내면 뒷바퀴 2개가 합쳐지는 내용을 그래픽으로 그려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했다. 대학측은 심 교수에게 언론과 인터뷰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지도했다. 이런 시스템을 거친 보도자료는 미국의 각 언론사에 전달됐고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시카고트리뷴, CNN, AP뉴스 등에 소개됐다. 심 교수가 보기에 연구 내용을 잘못 이해한 기사는 없었다. 심 교수의 유일한 불만은 자신이 한국인인데, ‘스코트 심’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면서 미국인으로 오해받은 것이었다.

학계, 연구소 과학홍보 시스템 총체적으로 열악

위 두 사례를 보면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과학 홍보에 대해 무심한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대학들은 입시나 교육정책 등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찾아다니며 홍보거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서울대의 경우 연구성과를 알리기를 원하는 교수들이 있으면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해주는 등의 간단한 전달자 역할만 하고 있다. 이것마저도 몇년전 홍보팀이 강화되면서 시작된 것이지 대부분의 교수들은 아직도 각자 능력 안에서 ‘각개격파’ 식 홍보를 하고 있다. 서울대 남혜경 홍보부장은 “국

민들의 관심이 입시나 교육 쪽에 치중되어 있고 홍보인력도 적기 때문에 솔직히 이공계 연구성과까지 대학 측이 컨트롤해 언론에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남 부장은 또 “대학 출입을 대부분 사회부 기자들이 담당하고 있어 어려운 과학보도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홍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없기는 대덕연구단지도 마찬가지다. 연구소 홍보팀은 기관장의 동정이나 연구소 행사를 소개하기 바쁘다. 구성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공계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 국내 대학과 연구소의 홍보업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다. 대덕연구단지 홍보협의회의 한 회원은 “홍보담당자가 딱 1명 있거나 대외협력과에 홍보담당자가 소속되어 다른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아 연구성과를 발굴해 보도자료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구 성과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덕연구단지의 한 과학자는 “홍보팀이 대부분이 신문방송학, 국문학, 경영학 등 소위 문과출신이라서 연구 내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연구 내용을 설명해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다음부터는 굳이 내 연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공계 출신 과학홍보 전문인력 확충 시급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알리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통제가 없을 경우 연구자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아무 여

과 없이 대중들에게 유포될 수 있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경우 대학이나 학회를 통해 자료가 제공된 것이 아니라 황 교수가 직접 기자를 상대하다보니 연구 내용이 부풀려지고 왜곡되었다.

이러한 연구발표가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에 ‘황우석 신드롬’이 생겼고, 최근에는 논문 조작과 검찰 수사까지 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었다. 서울대 공대의 한 교수는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연구업적을 알리기를 꺼려했지만 요즘은 연구비 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과학연구를 둘러싼 과장 보도 사건이 계속 터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과학자들은 해외처럼 과학홍보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공계출신으로 글 쓰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이언스 라이터’가 대학이나 연구소, 학회 등에 소속되어있다. 이들은 어려운 연구 내용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는 중간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윤석진 교수의 구상성단의 이중 색 분포 논문의 경우 사이언스에서 만든 보도자료의 제목은 “당신의 성단은 무슨 색깔입니까?(what color is your cluster?)”였다. 윤 교수는 “과학적 사실은 전혀 틀리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잘 포장되어 있었다”며 “내 연구를 이렇게 해석해 자료를 만들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탄했다”고 밝혔다.

최근 황우석 사건 등 사회적으로 과학이



정부과천 종합청사 2동 1층의 브리핑룸에서 과학담당 기자들이 브리핑을 듣고 있다.

큰 이슈가 되면서 과학 기사의 정확성이 부쩍 거론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7년 전인 1999년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대한의사협회는 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발표 과정에 대한 항목을 만들었다.

생명복제연구지침의 항목에 따르면 1)연구자가 연구발표를 신청하고 2)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며 3)국내외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4)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바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유아무야 되어버렸다.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는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제도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학계와 연구소의 과학홍보 현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정확한 평가와 홍보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T**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경향신문사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등을 거쳐 현재 과학전문기자로 활동중이다.